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초점)-美 대선 불확실성 속 희망을 보는 투자자들
 - ◇ (초점)-美 선거 결과 혼란에도 주식·채권 동반 랠리..딜러들의 해석은
 - ◇ (초점)-CD 금리 하루에 4bp 상승한 진짜 이유, 고시 제출 증권사의 '두 개의 금리'
 - ◇ (초점)-美 선거 최악 시나리오에도 원화 강세 재시동 이유는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세계를 몇일간 긴장시켰던 선거 및 개표 과정 끝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해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케빈 라마르크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1월6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120.4	1.3%	3.2%	-3.5%	유로	1.1872	1.9%	5.9%	-2.3%
100엔 대비	1,084.7	0.1%	-2.1%	-4.4%	엔	103.33	1.3%	5.1%	0.9%
유로 대비	1,331.3	-0.6%	-2.8%	-1.3%	위안	6.6100	1.6%	5.3%	-1.3%
위안 대비	169.52	0.2%	-2.2%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8,323.40	6.9%	-0.8%	22.3%
코스피	2,416.50	6.6%	10.0%	7.7%	나스닥	11,895.23	9.0%	32.6%	35.2%
코스닥	836.78	5.6%	24.9%	-0.9%	S&P500	3,509.44	7.3%	8.6%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605.97	6.2%	9.6%	15.8%
국고채 3Y	0.943%	0.8bp	-41.7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254%	1.9bp	-22.6bp	-40.4bp	미국채 2Y	0.155%	-0.2bp	-140.6bp	-93.7bp
국고채10Y	1.559%	1.3bp	-12.4bp	-26.5bp	미국채 10Y	0.820%	-5.4bp	-109.0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37.14	3.8%	-39.2%	34.5%	한국 5Y	22.8bp	-2.6bp	1.8bp	-17.0bp
금(현물)	1,951.51	3.9%	28.6%	18.3%	일본 5Y	16.6bp	0.0bp	-1.1bp	-4.0bp
TR상품지수	2,637.24	1.6%	6.1%	4.8%	중국 5Y	32.1bp	-7.1bp	1.5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11 월 9 일(월)>

- 금감원, 10 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06:00)
-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경제분야)(10:00)
- KDI, 현안분석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 19 경제위기'(12:00)
- 한은, 국내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관련 공개설명회 개최(12:00)
- 한은, '북한의 자본스톡 추정 및 시사점'(BOK 경제연구)(12:00)

<10 일(화)>

-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경제분야)(10:00)
-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1 월호 발간(10:00)
- 한은, '코로나 19 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12:00)

<11 일(수)>

- 기재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07:30)
- 통계청, 10 월 고용동향(08:00)
- KDI, 경제전망(하반기)(12:00)
- 한은, 10 월중 금융시장 동향(12:00)
- MSCI, 반기 리밸런싱 발표
- 관세청, 11 월 1-10 일 수출입

<12 일(목)>

- 한은, 10 월 수출입물가지수(06:00)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09:30)
- 금감원, 9 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06:00)
- 금감원, '20 년 3 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12:00)
- 한은, 10 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2:00)

<13 일(금)>

- 기재부, 11 월 최근경제동향(10:00)
- 한은, 9 월중 통화 및 유동성(12: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11 월 9 일(월)>

- 일본, 11 월 로이터 단칸 제조업지수 (08:00)
- 일본, 10 월 외환보유고 (08:50)
- 일본, 9 월 경기 동행 · 선행지수 (14:00)
- 유로존, 11 월 섹터스지수 (18:30)
- 미국, 10 월 고용추이 (24:00)

<10 일(화)>

- 일본, 10 월 은행대출 (08:50)
- 일본, 9 월 경상수지 (08:50)
- 중국, 10 월 PPI · CPI (10:30)
- 미국, 10 월 NFIB 기업낙관지수 (20:00)

<11 일(수)>

- 미국, 랜달 퀘일스 연준 부의장 상원 은행위원회 출석 (04: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뉴질랜드, 뉴질랜드 연방은행 통화정책 성명 발표 · 기자 간담회
- 미국 채권시장 휴장

<12 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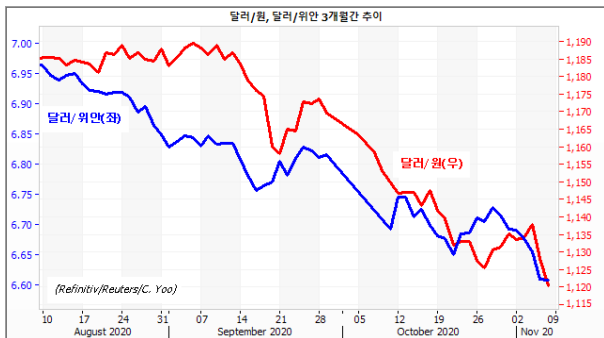
- 일본, 10 월 기업상품가격지수 (08:50)
- 일본, 9 월 기계류주문 (08:50)
- 유로존, 9 월 산업생산 (19:00)
- 미국, 10 월 CPI (22: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13 일(금)>

- 미국, 10 월 연방예산 (04:00)
- 유로존, 3 분기 고용 · GDP 잠정치 (19:00)
- 미국, 10 월 PPI (22:3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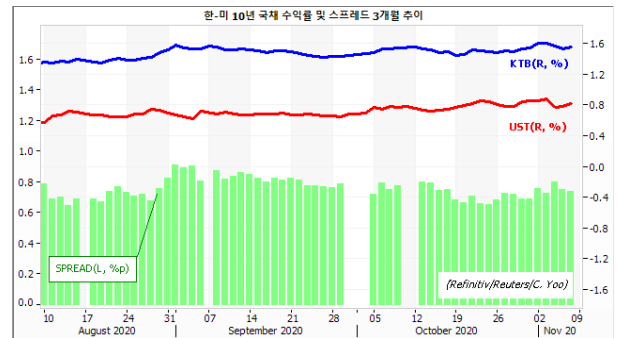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미국 대선을 소화하면서 절상 압력을 확대하고 있는 원화는 강세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10-1135 원이다.
-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원화 강세 모멘텀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결과 불복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있지만, 결과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은 관련 불확실성 완화에 초점을 맞춘 채 리스크 온 무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미-중 무역 긴장 완화에 따른 위안화 강세 여건이 전개되고, 이에 원화를 둘러싼 심리는 추가 강세를 지지할 공산이 크다.
- 수급은 달러 매도를 부추기는 가운데 무엇보다 그간 뜸했던 외인들의 증시 귀환이 지속되면 달러 매도 압력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 한편, 최근 전 세계 코로나 19 재급증에도 국내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데다 주요 경제지표들은 회복 조짐을 나타내면서 국내 펀더멘털은 그린 라이트를 밝히고 있다.
- 미국 대선의 뜨거운 열기는 한풀 꺾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화 강세를 자극하는 재료들은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 이번 주중에는 유럽중앙은행 포럼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의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주목되는 국내외 경제지표로는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와 이달 10일 기준 국내 수출입 잠정치 및 10월 고용 동향 등이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글로벌 코로나 19 확산 움직임 등을 반영하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미국 대선 결과는 시장 예상과 다르게 가격 인덱스에 영향을 미쳤다.
- 하지만 이같은 흐름이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에도 선거 결과가 확정된 후와 이후 흐름이 극적으로 뒤집어진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재료가 부각됐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은 트럼프 당선자가 천문학적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발표할 후 랠리 재료가 바뀐 바 있다.
- 미국 대선에 묻혔던 코로나 19 2차 대유행 재료의 부상 역시 간과해선 안 된다.
-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활발해지는 겨울을 맞아 코로나 19 확산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주요국의 봉쇄 조치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은 향후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료다.
- 기획재정부는 9일 '9월 재정동향'을 발표하고 통계청은 10일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한국은행은 10일에 코로나 19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내놓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에 하반기 경제전망을 내놓는다. 통화정책에 대한 KDI의 입장이 관건이다. 13일 기재부는 최근경제동향을 통해 최근의 경제회복세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초점)-美 대선 불확실성 속 희망을 보는 투자자들

뉴욕(로이터) -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선거일 이틀 후 투자자들은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해 규제 변화를 제한하고 연방준비제도의 지원을 이끌어낼 것이라 생각하며 매수세에 돌입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S&P500 지수는 장 마감 후 4.2% 급등, 사상 최고 증가보다 약 2% 모자란 수준까지 올랐다. 나스닥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약 1.4% 하회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국채 수익률이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증시 랠리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클 퍼브스 탈바켄 캐피탈 어드바이저 최고 경영자는 이메일을 통해 “국채 수익률과 기업 순익 전망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10% 더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선거가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은 별로 없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은 바이든이 당선되고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경우 대기업들, 특히 기술 분야 대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계획들이 무산될 것이라는 안도감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그린우드 캐피탈의 월터 토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시장은 자신들이 상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며 “그것이 대통령에 대한 논쟁을 다소 덜 중요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동시에 일부 투자자들은 제한적인 재정 부양책으로 재료·산업과 같은 다른 업종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업종들은 지난 5일 랠리를 보았다. 바이든 후보가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던 재생에너지 업종도 급락 후 큰 폭으로 반등했다.

투자자들은 지난 36 시간 동안 시장의 포지션은 다소 축소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국채 수익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주식 및 회사채로의 자금 유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대 기술 기업들의 주식이 급등할 전망이다.

조나단 벨 스탠호프 캐피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바이든의 당선은 재정 부양책 합의 가능성을 더 높인다. 그러나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그가 증세나 아마존이나 애플과 같은 기업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프랑스계 투자회사 카미낙의 디디에르 생조르주 전략투자위원회 위원은 제약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투자 배경을 거의 바꾸지 않았다며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이동하는 것은 혁명처럼 보이지만, 시장 측면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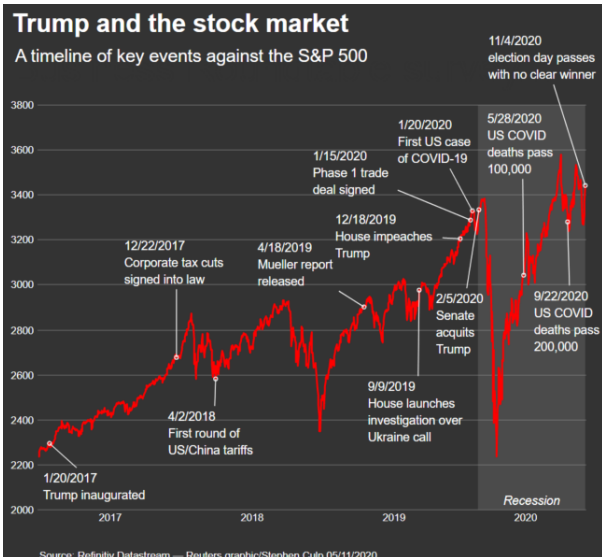
◆ 연준에 도움 요청

연준은 대규모 자산 매입으로 미국 국채의 수익률과 변동성을 떨어뜨렸고, 미국 주식의 급격한 상승을 이끌었다. S&P500 지수는 3월 저점에서 약 57% 상승했으며, 이번 주에만 7%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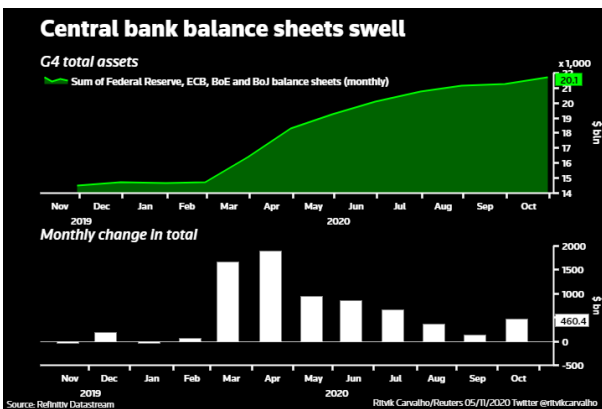
현재 재정 부양책의 모자란 부분을 연준이 메꾸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는 베팅이 이뤄지고 있다.

연준은 5일(현지시간)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미국 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몇 달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투자자들은 정책입안자들이 추가 지원과 관련 더 강한 가이드언스를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The risks facing the Fed: Jobs

As the Federal Reserve plots its policy into the next presidential term it is expected to keep credit conditions loose until the economy is repaired. It faces gaps in output, jobs and inflation to fill, and a threat of post-election market volatility.



Sou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초점)-美 선거 결과 혼란에도 주식·채권 동반 랠리.. 딜러들의 해석은

(※ 11 월 5 일 송고한 기사입니다)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경합 국면으로 치달으면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위험자산 가격이 크게 흔들릴 것이 라던 전문가들의 전망이 크게 빛나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주요 경합주에서 엇치락뒤치락하며 승부를 가르는 동안 뉴욕 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주식과 채권이 동반 랠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후보의 역전승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 불복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대부분의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일단 주식과 채권의 동반 강세는 민주당의 상원 장악 실패에 반응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민주당의 백악관 장악과 공화당의 상원 장악은 향후 경기 부양책 통과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당초 주가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민주당의 세금 및 규제 정책이 시행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주식으로 대기 매수 자금이 유입된 것이다.

채권시장 역시 대규모 재정 확대는 어려워졌다는 점을 반영하는 모습이다. 블루 웨이브가 어려워졌다는 인식 속에 그동안 과도하게 구축됐던 커브 스티프너가 되돌려지는 상황이다.

다만 블루 웨이브 포지셔닝의 핵심 중 하나였던 위안, 원화, 대만 달러 롱 포지션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A 외은 지정 트레이딩 헤드는 "미국의 대선 직후 시장은 위험 선호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동안 과도하게 반영했던 커브 스티프너는 되돌리고 있다"며 "다만 아시아 달러 숏 포지션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이는 일단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만 해소되면 결국 환율 가치는 펀더멘털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위안, 원화 등은 최근의 경기 회복 분위기를 반영해 나가는 듯하다"고 말했다.

▲대선 대비해 현금화된 자금 집행..트럼프 리스크 평가절하

다만 시장 참가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미국 대선에서 경합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는데도 가격 측면에서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2016년 미국 대선 당시에도 선거 결과가 확정되고 이틀 후 시장이 뒤집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엄청난 규모로 현금화됐던 자금이 막상 선거의 윤곽이 드러난 현시점에 '불확실성 해소'를 명분으로 다시 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과 연방대법원 제소가 현안으로 떠오르긴 했지만 결국 '시스템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불거진 것도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B 외국계 은행 트레이딩 헤드는 "미국 대선이 경합 국면으로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막상 주식은 달리고 원화도 달리는 상황"이라며 "내부 리서치에 따르면 대선을 앞두고 8천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현금화돼 시장에서 빠져나갔는데 집행만 기다리고 있던 이 자금이 다시 빠르게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들 워낙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 끝났네' 이런 분위기"라며 "주식은 미국 대통령으로 누가 되든 달리고 싶었는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명분으로 달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C 시중은행 이자율 딜러는 "상황이 여기까지 오니까 다들 한 가지 생각이 들게 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점에 미국을 혼돈으로 치달게 할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와 공화당이 자기 목을 걸고 트럼프를 지켜주겠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시간은 걸리겠지만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고, 블루 웨이브는 아니고, 당장 모두가 대비하기 힘들어했던 미국 대선은 끝났으니 일단 워라도 해야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지금은 그동안 과했던 포지션이 되돌려지는 과정인 만큼 이 되돌림이 끝난 이후에는 원래 가던 길을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점)-CD 금리 하루에 4bp 상승한 진짜 이유, 고시 제출 증권사의 '두 개의 금리'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지난 3일 유통시장의 양도성예금증서(CD) 거래를 반영해 고시 금리가 4bp 높게 조정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그동안 CD 고시금리가 실세금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오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았지만, 고시기관들이 유통시장의 거래를 한 번에 반영해 금리를 조정한 것은 전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안에 대한 취재 결과 CD 금리 개편안에 따라 증권사들이 현재 금융투자협회에 따로 제출하고 있는 CD 플러스(가칭) 금리가 고시금리와 상당한 괴리를 보인 것이 이번 금리 조정에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CD 금리 하루에 4bp 상승..고시 제출 증권사의 '두 개의 금리'

지난 3일 3개월 CD 고시금리는 전날보다 4bp 상승한 0.67%에 고시됐다. 7월 22일까지 0.79%였던 3개월 CD 고시금리는 8월 19일 0.63%까지 빠르게 내려간 후 70여일 만에 처음으로 움직인 것이다.

같은 기간 시장금리가 큰 폭의 등락을 보였던 점, 8월 19일 이전까지만 해도 역동적으로 고시금리가 조정받았던 만큼 지난 70여일 동안 CD 고시금리가 '0.63%에 고정'된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 만에 CD 고시금리가 4bp나 조정을 받은 것이다.

명분은 분명하다. 만기가 92일 남은 SC 제일은행 발행 CD가 0.68~0.69%에 400억 원 거래됐기 때문이다. 3개월물 CD와 만기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경과물이 거래되면서 CD 고시 제출 증권사의 금리 조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통시장에서 CD가 고시금리와 큰 괴리를 두고 거래됐을 때 그동안에는 고시증권사들이 한 번에 반영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서서히 고시금리를 조정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전반적인 여건상 고시증권사들이 CD 금리 조정 압박을 크게 느끼는 상황 아니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사들이 CD 금리 개편안에 따라 따로 제출하고 있는 'CD 플러스' 금리와 고시금리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게 이번 금리조정에 작용했을 가능성이다.

현재 금투협은 내년 2분기부터 적용할 'CD 플러스' 고시를 염두에 두고 고시증권사들을 대상으로 라이브테스트(모의실험)를 진행 중이다.

새로운 CD 고시 방식에 따르면 CD 고시 금리 산출 방식은 총 3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고시 금리 제출 증권사가 참여한 적격거래(만기 80일~100일인 CD 거래, 거래량 100억원 이상)를 활용해 CD 금리를 산정한다. 만기 80~100일 이상인 CD 거래가 없는 경우 인접 만기(2개월 또는 4개월)의 유통, 발행 물까지 CD 고시 금리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인접 발행·유통수익률마저 부족한 경우, 전문가적 판단을 통해 금리를 산정한다.

현재 증권사들은 기존의 관행을 준용한 CD 고시금리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CD 플러스 금리를 따로 금투협에 제출하고 있는데 현재 두 금리간에 괴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D 플러스, 고시금리와 괴리 확대..향후 시장 변화 시사

지난 8월 말 이후 CD 고시금리의 변동성이 줄어든 것과 CD 플러스의 라이브테스트 진행 시점이 겹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CD 고시 증권사들 입장에서 CD 플러스 고시금리를 금투협에 따로 제출해 제도 변화에 부응하면서 당장은 기존의 관행대로 CD 고시금리를 산출해 부담을 줄여왔다는 것이다.

금투협의 한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들이 라이브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CD 고시금리보다 경직성이 완화돼 있고 어느 정도 괴리가 있다"며 "증권사들 입장에서 당장 본인들이 해왔던 관행과 다르게 CD 고시금리를 산출해 발표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CD 고시금리를 결정할 때는 다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도 증권사들에 재량을 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단기금리가 오르고 있고 CD 고시금리와 CD 플러스 금리간 괴리가 커지는 부분이 있어 증권사들도 이 부분을 반영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증권사의 한 고시담당자는 "그동안 우리가 제출하는 CD 고시금리와 CD 플러스 금리간에 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어제 CD 금리 조정을 보니 이 부분의 괴리를 빠르게 줄여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향후 CD 고시제도가 개선될 경우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B 은행의 한 자금부장은 "지금까지는 CD 가 죽은 금리였는데 앞으로는 상당히 역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됐다"며 "유통시장에서 소액의 CD 가 거래된 것만으로 금리가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고민이 된다"고 설명했다.

(초점)-美 선거 최악 시나리오에도 원화 강제 재시동 이유는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개표 상황이 대혼전을 이루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을 떨쳐내는 데 애를 먹고 있는데도 원화 강제 추세는 조정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초·중반 핵심 경합주에서 계속 뒤지던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시간이 가면서 승리의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상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를 기대했던 금융시장은 민주당의 백악관에 공화당의 상원이라는 최악의 조합에 맞닥뜨리게 됐다. 또, 트럼프 캠프의 재검표 요구와 소송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언 시사 등에 따른 당선

자 확정 지연 가능성이 다시 시장을 불확실성 구도로 몰아가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달러는 반등했다. 블루 웨이브 기대가 약화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원화는 강세 압력을 키우면서 글로벌 달러의 흐름을 따르지 않았다.

▲ 원화의 또 다른 시선

달러/원 환율은 블루 웨이브 기대를 반영했던 1120 원대로 되돌아왔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 당선과 공화당 상원 수성 가능성으로 미국의 추가 부양책 규모 축소와 집행 시기 지연 우려에 따른 달러 반등에도 원화는 강세 경로를 되찾은 것이다.

배경에는 위안화에 있다. 바이든 후보 당선 가능성으로 미-중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역외 달러/위안은 전 저점을 뚫고 2018년 7월 이후 최저치로 밀려났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수석위원은 "바이든 후보 당선으로 미-중 갈등이 획기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바이든 후보는 일방적인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유화적인 다자주의 노선으로 기조를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의 시선은 위안화에 쏠려 있다.

A 은행 외환 딜러는 "글로벌 달러보다는 달러/위안이 전 저점을 뚫는 등 움직임이 커서 원화도 이를 반영할 듯하다"면서 "달러/원 추세가 여전히 아래쪽이라 역내 수급 및 역외는 오르면 팔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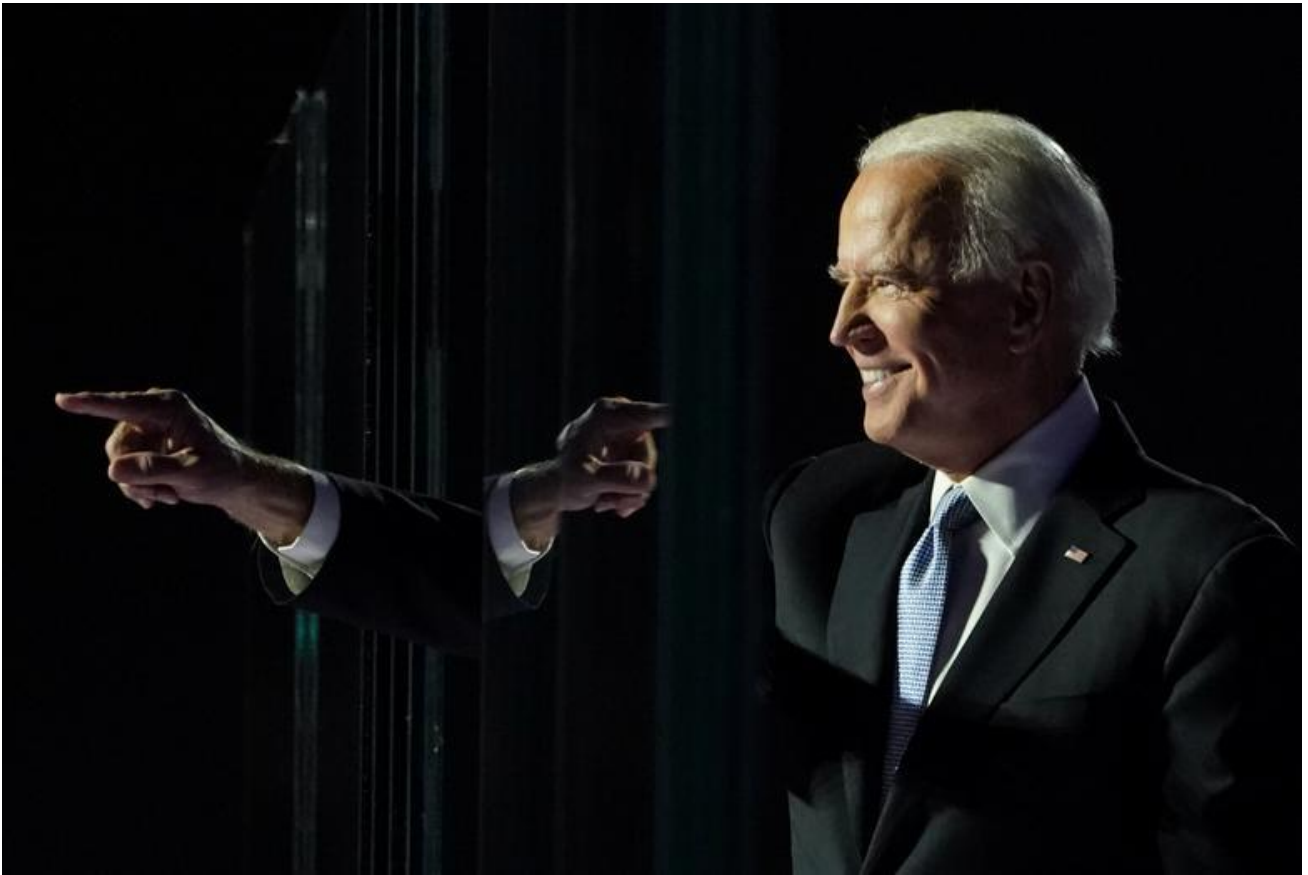
물론 지난달부터 원화 강세 속도가 가팔랐던 데 대한 부담이 당국 개입 경계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위안화 강세 여건이 마련된다면 코로나 19 방역을 비롯한 경제 개선에 대한 한국의 차별성이 어우러지면서 원화 강세 추세가 공고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B 은행 외환 딜러는 "전날 장 중 바이든 후보 당선이 불확실해진 데 따른 숏 커버가 진행되면서 달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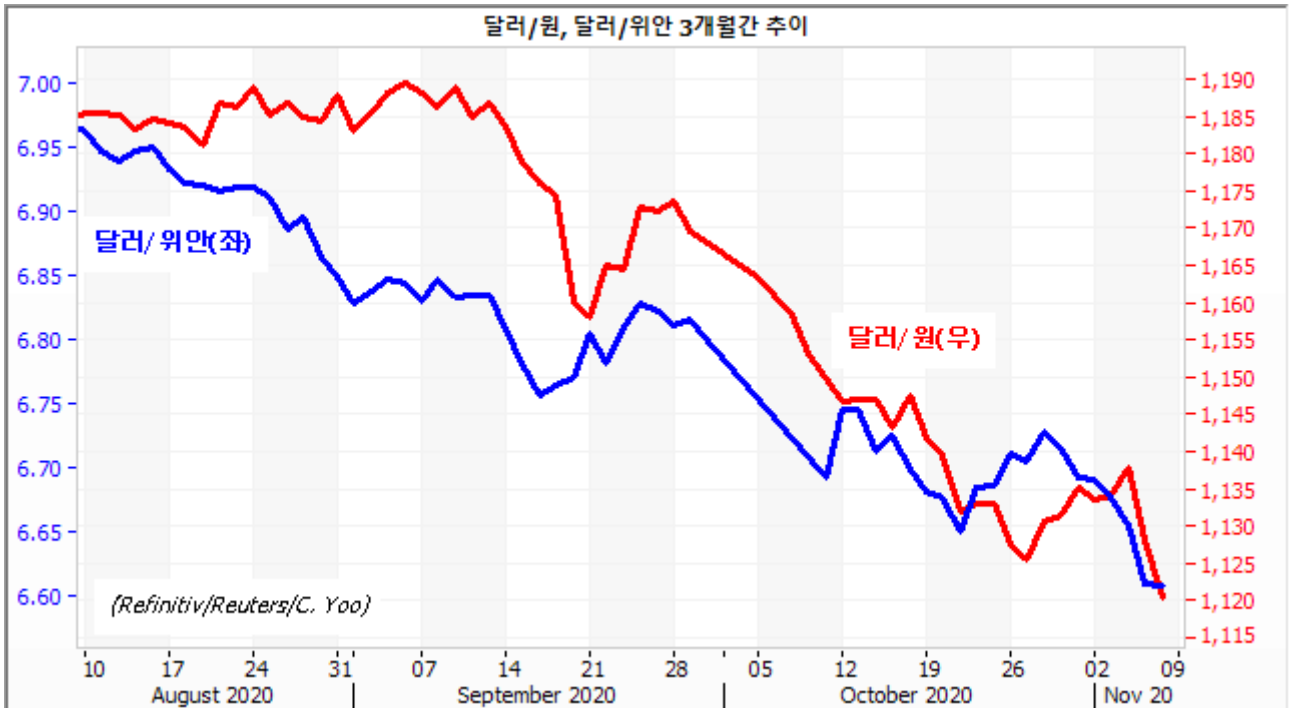
환율이 크게 출렁였다. 결국, 시장 포지션 관점에서 는 숏이 어느 정도 정리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소송 불복 등은 이미 시장에서 반영된 시나리오"라면서 "미국 대선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원화는 기존의 강세 추세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1100 원을 향한 원화 강세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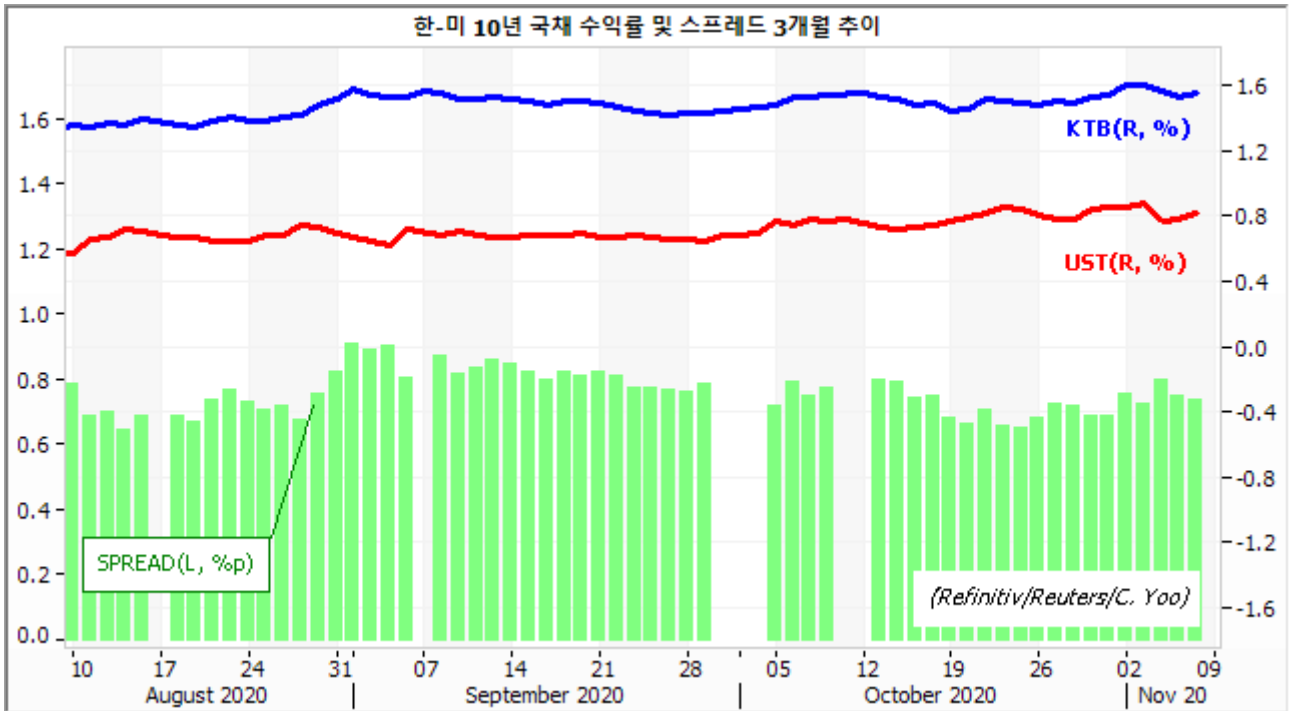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Trump and the stock market

A timeline of key events against the S&P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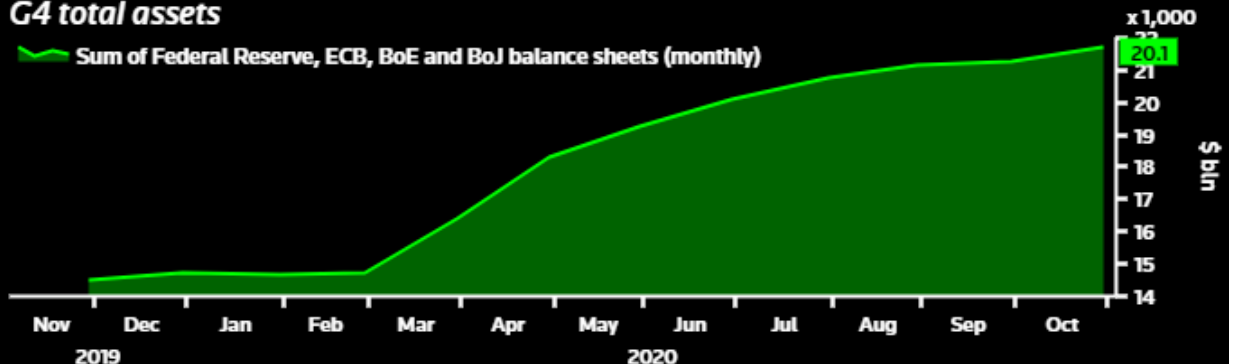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Reuters graphic/Stephen Culp 05/11/2020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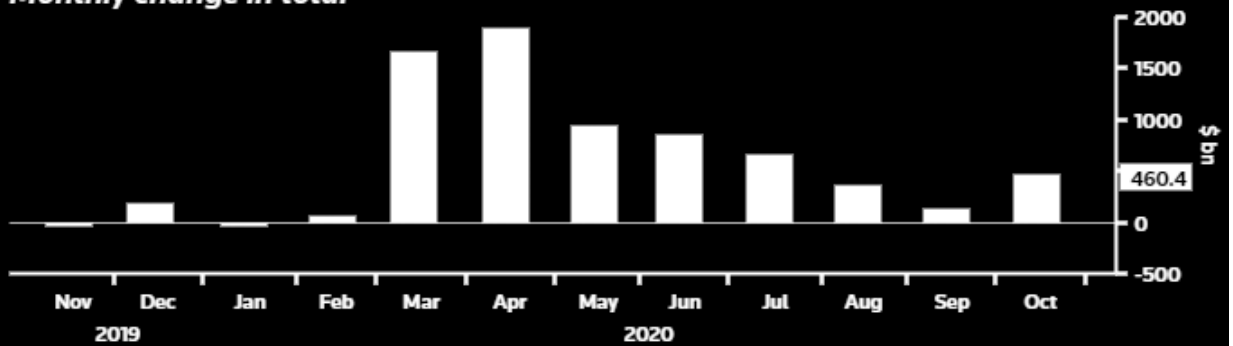
Central bank balance sheets swell

G4 total assets

Sum of Federal Reserve, ECB, BoE and BoJ balance sheets (monthly)



Monthly change in total



Source: Refinitiv Data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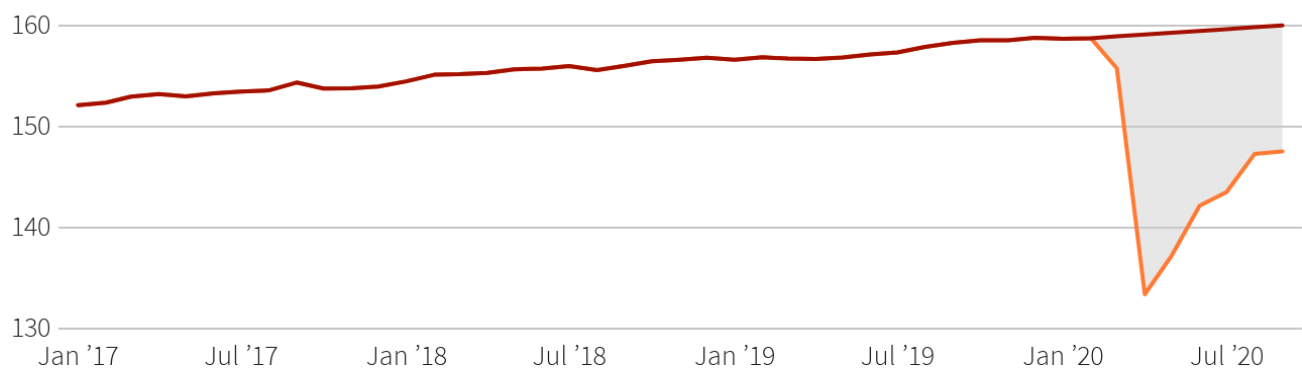
Ritvik Carvalho/Reuters 05/11/2020 Twitter @ritvikcarvalho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The risks facing the Fed: Jobs

As the Federal Reserve plots policy into the next presidential term it is expected to keep credit conditions loose until the economy is repaired. It faces gaps in output, jobs and inflation to fill, and a threat of post-election market volatility.

— Employment level in millions — Employment at prior trend beginning March



Sou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